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6, No.8 (Nov. 2006) pp.35-44

한 · 중 · 일 전통 복식색채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 영 인* · 이 지 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ostume Colors of Korea·China·Japan

Young-In Kim* · Jee-Hyun Lee+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6. 3. 28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ostume colors of Korea·China·Japan with quantitative methods. The rang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costume colors from 16th to 19th century. For this study 1333 color samples were collected by measuring with a spectrophotome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d, Yellow Red, Yellow and Purple Blue had been used in common for the traditional costume colors of Korea, China and Japan. Yellow of Korea, Purple Blue of China, Yellow Red of Japan showed the high frequency. Red, an asian preference color, had most frequently used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Pale toned Yellow and Yellow Red, high saturated Red and low valued Purple Blue had been preferred for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e preferences of high saturated Red and low valued Purple Blue were based on the Five Element theory and the pale toned Yellow and Yellow Red were used with the preference of White and natural colors. In China the traditional costume colors had used with the Five Element theory also but they had preferred Purple Blue, deep & strong toned Red to Yellow Red and Yellow. Yellow Red, Purple and grayish colors had been frequently used in japanese traditional costumes.

In the results of color distributions in L*a*b* color space,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costumes colors concentrated in some areas like Yellow, Yellow Red, Red and Purple Blue. Japanese costumes colors showed the even distribution with the diverse toned colors.

Korean traditional costume colors corresponded with the Five Element theory rather than China and Japan. Japan had used the costume colors with the racial sensibility rather than conceptual color theory.

Key words: Korea(한국), China(중국), Japan(일본), traditional costume color(전통 복식색채)

corresponding author: Jee-Hyun Lee, e-mail: ez2@yonsei.ac.kr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교류로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 혹은 문화권으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획일화 현상에 대응하여 문화의 다원화, 지역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사회는 종교, 사상, 인종, 언어 등에서 공통점을 갖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문명공동체로 블록화 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자 측면에서 한자(漢字)를 공유해 왔고, 전통적으로 유교에 기반 한 사회구조 및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이 지역은 20세기 후반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고, 비서구 사회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활발해진 정치경제적 교류와 문화개방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 문화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세계 속에서 일정 수준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일관된 정책의 부재로 인해 일본, 중국에 비하여 세계 속에서 문화 인지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특질을 모색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가시적 문화요소이며 한국가 또는 문화권의 사상과 이념, 제도, 관습 등의 기호 역할을 하는 복식의 색채[1]를 통하여 삼국 문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중·일 고유의 색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대상은 민족의 감각과 선호에 의한 색채의 사용이 가능했던 전통복식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가시적 조형요소인 색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16세기 이후부터 근대화 이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19세기 근대화 이전까지로 제한하였다. 수집된 복식색채의 데이터는 측색 및 먼셀체계, LAB체계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통하여 삼국 전통 색채문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삼국의 색채에 대한 기호의 경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한국문화의 '색채 정체성'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구체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색채를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다양한 문화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한·중·일의 전통 색채관

1. 관념적 사상에 의한 색채관

한·중·일 삼국은 색채 사용과 해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음양오행사상을 토대로 한 관념적 색채관을 가지고 있다. 음양오행사상은 음양설과 오행설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 음양설은 우주간과 삼라만상을 음양의 화합과 조화로 설명한 것이다. 본래 햇볕을 의미하는 양(陽)과 그늘을 의미하는 음(陰)의 의미가 확대 발전되어 양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더위, 밝음, 건조, 견고성 등을 나타내고, 음은 여성적인 것, 수동성, 추위, 어두움, 습기, 유연성 등을 뜻하게 되었다[2]. 그러나 사물의 음양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관적 관계로, 특정의 사물과 사물이 비교 상태에서 서로 마주 서 있는 상대적 관계도 있고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며 마주 서 있는 상반적 관계도 있는 다소 유연한 개념이기도 하였다[3]. 중국에서 발달되어온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색채는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으로 구분하는데 오방색은 바로 오정색에 해당된다. 오행의 정색(正色)은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의 5가지 색을 말하며 간색(間色)은 정색의 배합에 의한 색으로 청과 백의 간색은 벽(碧), 청과 황의 간색은 녹(綠), 황과 흑의 간색은 류, 적과 흑의 간색은 자(紫), 적과 백의 간색은 홍(紅)이다. 오행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서로 상생, 상극하여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이나 존재에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했고 이 사상계는 색채의식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어 모든 색채를 오채(五彩)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오방

색에 의한 관념적 색채가 가장 뚜렷하게 사용된 것은 의생활 분야였으며 계급 표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삼국의 전통 복식색채는 지배계층의 엄격한 정색관념(正色觀念)과 관계가 있어, 오방색을 비롯한 유채색은 상류층에서 즐겨 사용하였고, 민간인들은 무채색 중심의 복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즉, 한·중·일 삼국 공히 유채색은 화려·장엄·사치·권위의 상징으로 권력층의 전유물이었다. 민간인들이 유채색의 옷을 입는 경우는 대례, 명절과 같은 비일상적인 날이었으며, 무당과 기생 같은 특수계층의 사람들은 신분을 나타내는 채색옷을 입기도 하였다. 이는 계급사회에서 계급에 따른 엄격한 색채의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미적 감성에 의한 색채의 사용보다는 지배층의 전유물로 색채가 인식되었던 것을 의미 한다[4].

2.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한 색채관

한·중·일의 색채는 관념적 색채의 사용 외에도 각 국의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음양오행사상에 바탕을 둔 정색관념에 따라 상층문화와 기층문화의 색채는 이분화되었고, 상층문화에서도 공식적인 의복과 평상시에 입는 의복의 색이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즉, 관념적 색채의 사용 외에 일상의 삶에서의 색채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배계층은 평상시에 주로 백색을 입었으며 민간인들도 백색을 입었다. 13세기 고려 충렬왕 이후 여러 차례 거듭된 백의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백색의 지속적인 사용과 선호는 우리 민족이 백의민족이라 불리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기층문화에 나타난 백의는 오랜 관습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형성된 색채문화임을 알 수 있다[5]. 한편, 중국의 문화가 '진(眞)'의 파악을 중시했다면 일본의 문화는 대상의 '진' 보다 '미(美)'를 우선시 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 '진'이란 단지 겉면의 형태가 아닌 '조화의 참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氣)' 또는 '기운(氣韻)'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가 리얼리즘에 경도되는 경향과 관계있다[6]. 이와 달리 '미'를 우선시 하는 일본 문화는 가부키, 기모노, 종이장식과 같은 '꾸밈'의 문화와 건축, 다기(茶器) 등에서 나타나는 '반(反)꾸밈'의 문화로 양분되어 발전되었다. '꾸밈'의 문화는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자주색, 남색, 홍색, 황색, 흑색 등 다채색의 사용과 함께 금, 은색 장식을 사용하는 화려함으로 표현되며 '반꾸밈'의 문화는 건축 및 제품 등에서 재료색 자체의 미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센노리큐(千利休, 1522-1591)[7]에 의해 정립된 다도(茶道)는 실내공간 및 다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용품의 색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7세기 이후 일본의 전통 복색으로 차(茶)색이 자리잡는데 영향을 미쳐 한국·중국과는 다른 전통색을 발전시켰다.

3. 기후·풍토의 영향에 의한 색채관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각자의 환경에 어울리는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대륙국으로 망대(茫大)한 강, 거대하고 웅장한 산, 무한히 펼쳐진 평야, 단단한 돌, 매서운 추위와 더위 등, 거대한 자연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한 근육과 정신력, 인내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중국의 대담한 색채는 이렇게 거대한 자연환경과 충분히 어울리는 것이었다. 섬나라인 일본은 일조와 비의 혜택을 입어 식물의 생육에 적절하였으며 산과 들은 초목으로 싸여 있어, 중국과 같이 사람을 위압하는 암벽으로 치솟은 돌산이나 황폐한 사막과 같은 자연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화려한 색채는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은 섬나라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것이다[8].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오랜 지형사를 지닌 한국의 풍토는 노년기 지형으로 경사가 완만하며, 넓은 장지가 별로 없이 구불거리는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만, 강우량이 충분치 않아 수목이 성장이 느리며 곡목(曲木)이 많이 분포한다. 따라서 한국의 색채는 밝으며 자연의 온화함을 표현한 색이 어울리는 것이었다.

문정선의 연구에 의하면 한·중·일 삼국의 색채사용에서 채도는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로 높으며 명도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로 높은 특성을 보

인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풍토의 변화가 더욱 심하여 강렬한 원색이 선호되었으며, 한국은 기후가 온대에 속하고 안정된 산야로 구성되어 있어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담백한 색조의 순한 색을 즐기는 경향이 있게 되었고, 일본은 습기가 많아 간색계(間色系)의 색을 매우 발달시켰다고 설명되기도 한다[9].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 복식색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색채 판별이 가능한 현존 자료가 존재하며, 근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문화적 혼란을 겪기 전인 16세기부터 19세기로 한정되었다. 전통 복식색채의 자료 수집은 선행연구의 유물 측색 데이터, 전통색 연구에서 검증된 전통색의 색값 데이터와 전통복식 사진자료 등의 색채 측색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통복식 관련 선행연구[10][11] 및 국립민속박물관[12], 이화여대박물관[13], 숙명여대박물관[14], 석주선 박물관[15],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유물 및 도록이미지[16] 측색 데이터,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17]에 포함된 한국의 전통색 데이터, 문헌 정보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문헌 정보 및 중국 전통복식도감[18], 복식 이미지 자료[19][20][21] 등을 이용하여 색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일본 복식의 경우는 일본전통색표집 데이터와 선행연구 등의 문헌 정보[22], 일본 전통복식 관련 서적[23], 이미지 자료[24][25][26] 등을 이용하여 색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중·일 전통 복식색채 특성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색채 데이터는 총 1333색이었으며, 나라별로는 한국 552색, 중국 333색, 일본 448색이었다.

수집된 색채샘플은 Minolta CM-503i와 Macbeth Color Eye 7000을 사용하여 표준광 C와 표준관측자 2도 시야에서 CIE L*a*b*값과 먼셀 색체계의 HV/C값을 측색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L*a*b*값은 다시 Color 3D프로그램을 통하여 색채공간 안에서의 색 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Ⅳ. 한·중·일 전통 복식색채의 특성

1. 한·중·일 전통 복식의 색상 분석

한·중·일 전통 복식색채 특성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색채 데이터는 총 1333색으로 분석에 사용된 복식색채의 이미지는 그림 1과 같다. 한·중·일 복식의 전통 색상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Y(26.1%), R(24.1%), YR(14.9%), PB(11.2%), RP(7.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PB(23.2%), Y(19.2%), R(16.2%), YR(13.8%), P(7.8%), 일본의 경우 YR(24.7%), Y(20.0%), R(14.6%),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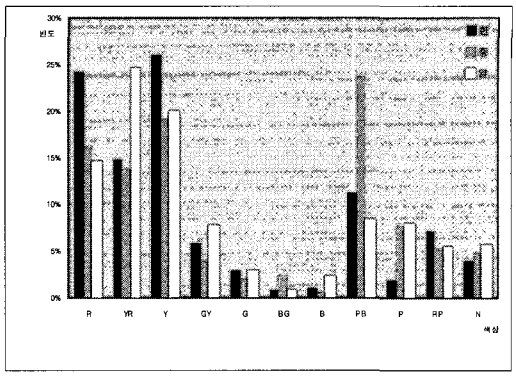
〈그림 1〉 한·중·일 전통 복식의 색채이미지

(8.3%), P(7.8%)의 순서로 색상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2〉. 한국의 경우 Y, R, YR을 중심으로 한 난색의 사용 빈도가 전체 색상분포의 65.1%를 차지했으며 일본도 59.3%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달리 중국은 PB색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한국, 일본에 비하여 난색의 빈도(49.2%)가 낮은 분포를 보였다. 한·중·일의 가장 특징적 선호 색채 중 하나이며 중국, 일본의 상징적 전통색채로 사용되고 있는 R색상의 경우 삼국 중 한국에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PB색상, 일본은 YR색상의 사용빈도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R색상의 사용특성에 있어서 한국, 중국은 7.5R의 사용빈도가 높은데 반하여 일본은 10R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YR의 경우 2.5YR의 빈도가 높아 한국, 중국에 비하여 주홍에 가까운 빨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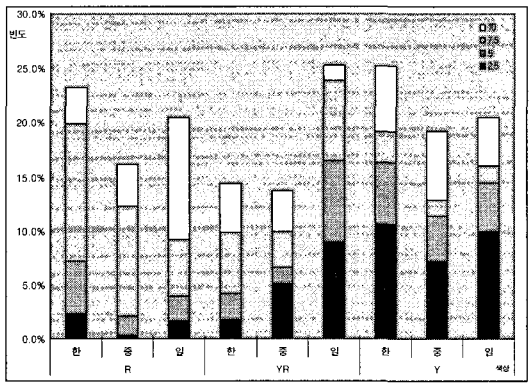
GY, G색상은 간색으로 한·중·일 모두 사용빈도가 낮은 색이지만 중국에서의 사용빈도가 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명·청시대 중국복식에서 녹색을 천색(賤色)으로 여기었던 문화적 특성[27]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오방색 중 중국, 일본에 비하여 7.5R, 2.5Y계열에 집중된 사용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5PB, 7.5PB색상에 편중된 특징을 보였고, 일본의 경우 YR과 P계열의 색상이 한국과 중국에 비하여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의 꾸밈의 문화와 관련된 다채색의 사용과 일본 전통 복색 중 남성복, 여성복에 모두 많이 사용되었던 홍매(紅梅), 목단(牧丹), 자(紫)색의 선호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 삼국의 복식색채는 오방색이라는 관념적 색채의 사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각기 다른 색상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관념적 색채의 사용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 일 삼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전통적 색채선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 한·중·일 전통복식의 색상 분포



〈그림 3〉 R, YR, Y색상의 40색상 분포도

2. 한 · 중 · 일 전통 복식의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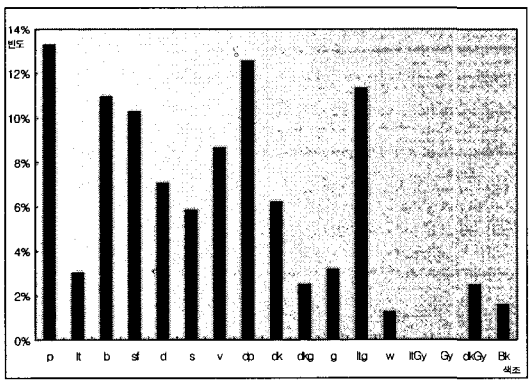
한·중·일 삼국의 색채는 색상보다 색조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삼국 복식에 나타난 전통 복식색채의 색조분포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p(13.0%), dp(12.3%), ltg(11.1%), b(10.8%), sf(10.1%)의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영역의 색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도차가 큰 p과 dp색조의 사용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전통배색 방법 중 상하별색 착용법 중 dp색조의 치마, dp색조의 깃, 고름, 끝동 배색 특성 등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중국은 dp(17.5%), p(9.9%), dkg(9.9%), s(8.4%), d(8.1%) 순으로 p색조 외에 주로 중·저명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p(13.2%), g(12.7%), b(11.6%), lt(10.5%), ltg(8.5%)의 분포

를 보여 고명도의 색채 빈도가 높았다. 중국은 dp색조, 일본은 g색조에서 특징을 보였다〈그림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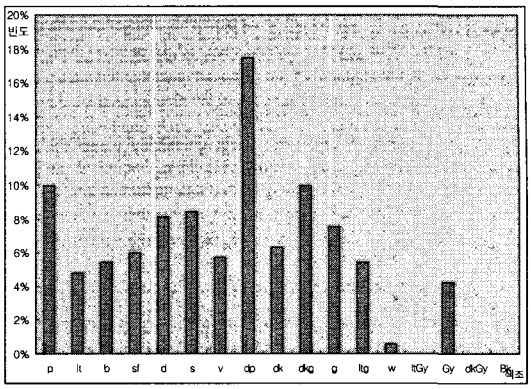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하여 dp색조의 비중이 컸으며, 한국과 일본은 p색조의 사용 비중이 중국에 비하여 컸다. 고채도 영역의 색채사용에서 한국은 b, dp색조, 중국은 s, dp색조, 일본은 b색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삼국 중 중국 전통복식이 가장 강한 색채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고명도 영역의 색채사용에서 일본은 밝고 색감을 강조한 lt, b의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고 한국은 색감이 거의 없는 p, ltg색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이 중 한국의 p, ltg색조는 남녀 복식에 모두 나타나는 소색(素色)의 잦은 사용과 관계있는 것으로 재료색에 의한 자연의 색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염색에 의한 p색조 특성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친자연주의적 관념에 의한 색채의 사용과 백색선호라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g계열의 색조는 한국이 ltg색조를 많이 사용한 반면, 중국은 dkg색조가, 일본은 g색조가 많이 사용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본복식에서 나타나는 g색조의 선호는 일본문화의 와비(わび)와 사비(さびん)를 바탕으로 하는 떫은(시부이しぶい) 색의 선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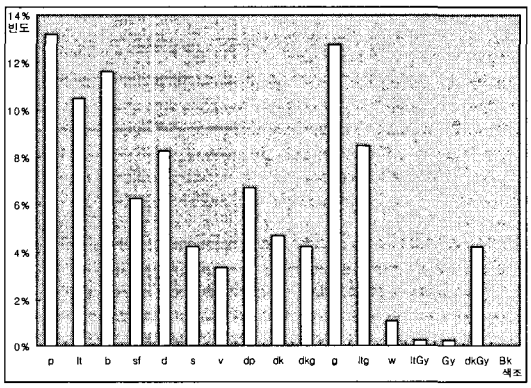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은 복식의 색조 사용에 있어 특정 영역에 편중된 현상을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비교적 넓은 영역의 색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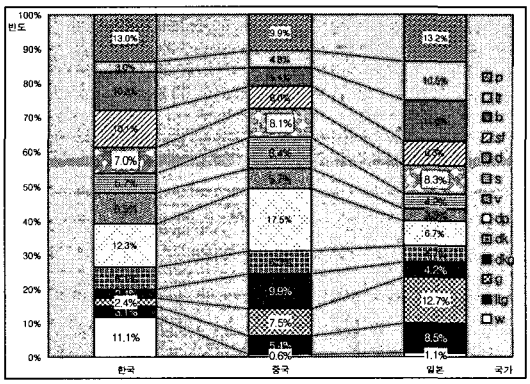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전통복식의 색조 분포



〈그림 5〉 중국 전통복식의 색조 분포



〈그림 6〉 일본 전통복식의 색조 분포



〈그림 7〉 한·중·일 전통복식의 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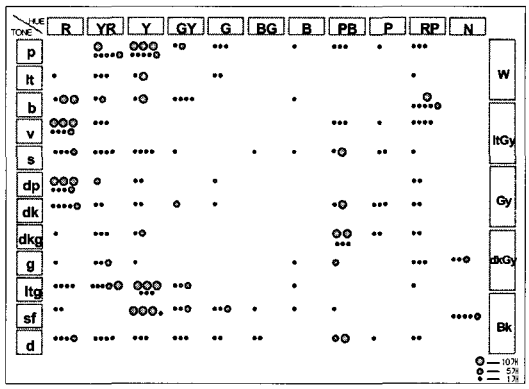
3. 한 · 중 · 일 전통 복식의 색상/색조 분석

한·중·일 삼국의 전통복식의 색상과 색조를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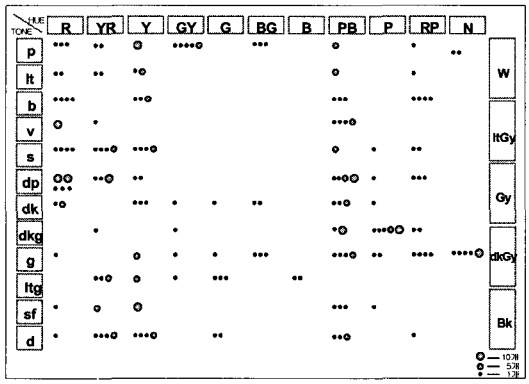
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p색조의 Y, YR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소색과 같이 색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고채도의 색조 영역에서는 주로 R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b색조의 RP색상도 사용되었는데 RP색상은 배색 및 자수 등과 같이 장식 목적의 보조색으로 사용된 특징을 보였다. 오방색 중 하나인 PB는 R색상과 달리 dk, dkg, d, s색조 등 중·저 명도의 색조를 띄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복색으로 간색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특색을 보였으며 RP색상과 GY색상은 색동 등의 배색 및 장식용 자수 등에서 많은 사용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복색은 R, Y, PB를 바탕으로 한 오방색 중심의 관념적 색채관에 따른 색채의 사용에 기초하고 있으나 p, ltg색조의 Y, YR을 중심으로 한 재료색, 자연색의 선호라는 문화적인 색채관에 따른 소색도 비중 있게 사용되었다. 한국은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다양한 색조영역의 R색상을 사용하였고 그 중 고명도의 R색상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중국도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 색체계를 바탕으로 복색을 사용하였으나 한국, 일본과 달리 가장 특징적으로 사용된 색상은 PB로 다양한 색조 영역에서 사용되었으며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또한 dp, s색조의 R, YR, Y, PB의 사용은 중국의 화려하고 강한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는 매우 특징적인 색채임을 알 수 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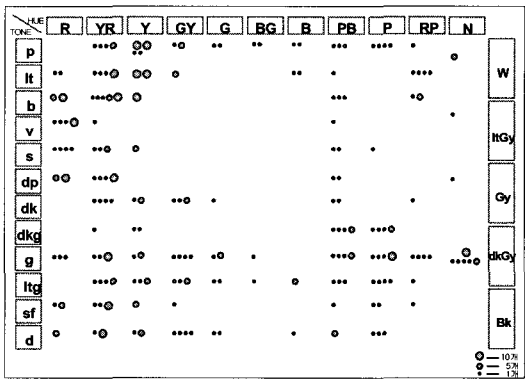
일본 전통복식에서는 YR과 PB색상이 다양한 색조로 고루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중 b색조의 YR색상과 p색조의 Y색상은 일본 여성 기모노의 가장 특징적인 색상이었다.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에 비하여 P계열 색상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한국·중국과 달리 RP계열의 색상보다는 PB와 P계열의 색상의 사용이 많았으며, g색조는 다양한 색상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한국, 중국과 다른 색채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복식에 나타난 화려한 b, lt색조의 R, Y, YR색상과 탁하고 가라앉은 g색조의 P, PB색상의 특징적 사용은 오방색에 의한 관념적 색채 보다는 일본문화에 내재된 꾸밈과 반꾸밈문화의 전통적 색채특성과 와비와 사비에 기초한 색채선호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그림 10〉.



〈그림 8〉 한국 전통복식 색상/색조 분포도



〈그림 9〉 중국 전통복식 색상/색조 분포도



〈그림 10〉 일본 전통복식 색상/색조 분포도

4. 한·중·일 전통복식의 색채 공간 분석

한·중·일 전통복식 색채데이터를 L*a*b*색채공간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전통복식 색채는 중, 저채도의 색채분포가 적어 일본에 비하여 색채공간에서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편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전통복식의 색상이 오정색에 치중되어 있어 색채공간에서 R, Y, PB를 중심으로 한 오방색 영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3가지 중심 색상 영역의 사용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오방색에 기초한 관념적 색채사용이 한·중·일 삼국 중 가장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11〉. 또한 한국의 전통복식색채는 오방색 체계를 동일하게 갖는 중국 복식색채 보다 흰색에 가까운 고명도의 색상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p, ltg색조의 Y, YR색상의 사용빈도가 높았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색의 빈도가 높은 문화적 특성 및 한국의 친자연주의사상 및 백색 선호사상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전통색채 사용이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 색채의 사용과 사회, 문화적 특징 및 선호에 따른 색채 사용이 이분적으로 병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전통 복식색채는 한국과 유사하게 오방색을 중심으로 하는 색채공간에 분포되어 있으나 한국보다 중채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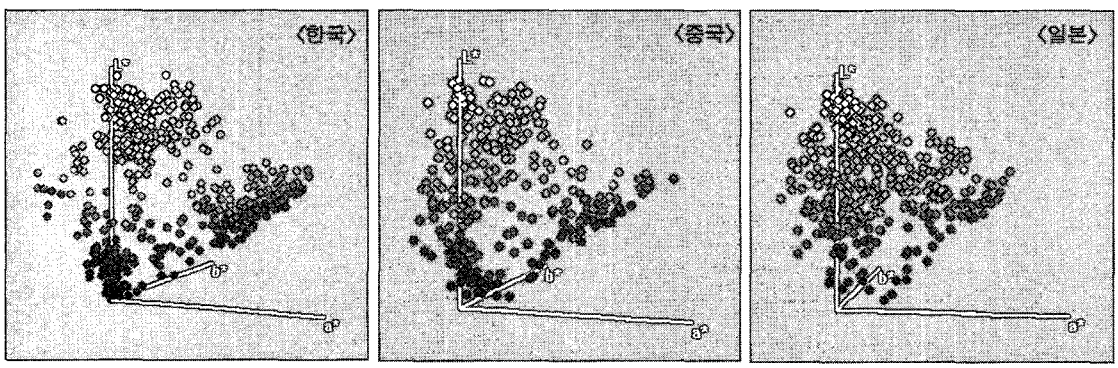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 복식색채는 한국과 중국의 색채분포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에 비하여 정색 뿐 아니라 간색의 사용이 많고 색조면에서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고 있어 색채공간에서 비교적 고르고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명도 영역의 색채사용이 적고 중고명도 영역의 색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전통 복식색채의 색채공간에서의 분포는 일본의 색채가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인 색채 사용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특징에 따른 감성적인 색채 사용에 더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이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 복식색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일본과 차별화되는 한국 전통 복식색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복식의 전통 색상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삼국은 R, YR, Y, PB를 중심으로 하는 오방색을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졌으나 사용빈도 측면에서 한국은 Y, 중국은 PB, 일본은 YR이 가장 높았다. 한·중·일의 가장 특징적 선호 색채 중 하나이며 중국, 일본의 상징적 색채로 사용되는 R은 한국 전통복식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삼국 복식에 나타난 전통 복식색채의 색조분포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명도차가 큰 p과 dp색조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국은 dp색조가



〈그림 11〉 한·중·일 전통 복식색채의 색채공간 분포도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p, g색조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 상하별색 착용법 중 dp색조의 치마, dp색조의 깃, 고름, 끝동 배색 특성 및 남녀 복식에 모두 나타나는 소색의 잦은 사용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dp색조 및 s색조의 사용이 삼국 중 가장 높아 강한 색채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은 p색조와 다양한 색상에서의 g색조의 높은 빈도로 일본 복식색채의 탁하고 떫은 색의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중·일 삼국의 전통복식의 색상과 색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p색조의 Y, YR 색상, 고채도의 R색상, 중·저 명도의 PB의 빈도가 높았으며 간색은 많이 사용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한국의 전통복색은 R, Y, PB를 바탕으로 한 오방색 중심의 관념적 색채관에 따른 색채의 사용에 기초하고 있으나 p, ltg색조의 Y, YR을 중심으로 한 재료색, 자연색의 선호라는 문화적인 색채관에 따른 소색도 비중 있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다양한 색조영역의 R색상을 사용하였고 그 중 고명도의 R색상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 색체계를 바탕으로 복색을 사용하였으나 한국, 일본과 달리 다양한 색조영역의 PB, dp, s색조의 R, YR, Y의 사용으로 화려하고 강한 색채이미지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YR과 PB색상이 다양한 색조로 고루 사용되고 있었으며 한국, 중국에 비하여 P계열 색상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g색조는 다양한 색상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화려한 b, lt색조의 R, Y, YR색상과 탁하고 가라앉은 g색조의 P, PB색상의 특징적 사용은 오방색에 의한 관념적 색채관 보다는 꾸밈과 반꾸밈문화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넷째, 한·중·일 전통복식 색채데이터를 L*a*b*색채공간에서 분석한 결과 삼국의 복식색채는 오방색이라는 관념적 색채의 사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각기 다른 색상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일본과 달리 한국과 중국의 전통복식 색상은 오정색에 치중되어 있어 색채공간에서 R, Y, PB를 중심으로 한 오방색 영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였으며 한국은 삼국 중 오방색에 기초한 관념적 색채사용이 가장 특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전통 복식색채는 한국과 유사하게 오방색을 중심으로 하는 색채공간에 분포되어 있으나 한국보다 중채도의 비중이 높았으며 일본의 전통복식색채는 간색의 사용이 많고 색조 면에서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고 있어 색채공간에서 비교적 고르고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명도 영역의 색채사용이 적고 중고명도 영역의 색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문명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는 한·중·일 전통 복식색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중국, 일본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색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삼국의 색채특성 및 기호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색채 정체성을 반영하는 전통 문화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복식색채 특성 분석을 위하여 시대별 유물의 측색 외에 도록 및 잡지의 복식 이미지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는 정확한 색채의 재현보다는 복식의 색상 및 색조의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1) 이지현 (2005).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과 문화기호론적 해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3.
2) 마우란 · 유창훈 (1975). 中國 哲學史. 서울: 세음사, p. 193
3) 유환희 (1988). 조선철학. 서울: 장원, pp. 40-42.
4) 김지영 (2002).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3.
5) 김지영 (2002).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5.
6) 쓰지 노부오 (2000).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시공사. p. 134.
7) 센노 큐 (千利休, 1522-1591)는 다케노 쇼오(武野紹鷗, 1520-1555)에게 영향을 받아 다도의 모든 형식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그의 차풍은 호화찬란한 미와 소박미를 대조시킨 간소함의 차로 대표된다. 그는 중국 물품 중심이었던 종래의 차 도구로부터 한국의 도자기와 민중의 일상 잡그릇을 차의 도구로 확립시키며 일본 차문화의 새로운 경지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우서혜 (2001). 한국적 색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문정선 (1998). 복식에 나타난 전통색의 비교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10) 조희래 (1995). 한국적 복식디자인을 위한 색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강병희·조희래·김영인 (1998). 한국적 복식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색동의 색채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2 (3).
12)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3)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 담인 복식미술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4)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1993). 숙명여대 박물관 도록. 서울: 용지인쇄.
15) http://museum.dankook.ac.kr
16)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록: 인촌 김성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집. 서울: 삼화인쇄.
17) 국립현대미술관 (1991, 1992). 한국 전통 표준색명 및 색상. 국립현대미술관
18) Yuan Jieying (2002). *Traditional Chinese costumes.*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 韋榮慧 (1992). *Chinese national culture of costume and adornment.* 北京: 紡織工業出版社.
20) Valerie Steele & John S. Major (1999). *China chic: East meets West.*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21) 引自 (1984).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22) 長崎盛輝 (1988). 日本の傳統色彩. 京都書院.
23) Alan Kennedy (1990). *Japanese costume: history and tradition,* Konecky & Konecky.
24) Amanda Mayer Stinchecum (1984). *Kosode: 16th-19th Century Textiles from the Nomura Collection.* Japan Society and Kodansha International.
25) Hugo Munsterberg (1996). *The Japanese kimono,*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26) Dale Carolyn Gluckman & Sharon Sadako Takeda (1992). When art became fashion: kosode in Edo-period Japan, Los Angeles, Calif.: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New York, N.Y.: Weatherhill
27) 이수웅, 김경일 (1995). 중국문화의 이해. 대한교과서.
28) 이상업 (1998). 일본문화와 그 마음. 도서출판 보고사.